한 달 간격으로 두 딸 얻은 여성

미네소타주의 한 불임 부부가 생각지 못한 임신으로 딸 둘을 한꺼번에 얻었다.

7일 abc NEWS에 따르면 켈시 피어스(31)는 간절히 아기를 원했지만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 임신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부부에게 대리모를 권했다. 문제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대리모 비용이었다. 이들 부부는 체외수정과 배아이식을 반복하며 이미 적지 않은 빚까지 지고 있었다.

좌절한 이들에게 손을 내민 건 대리모를 자청하고 나선 피어스의 어머니 리사 러더포드(53)였다. 리사는 고령이라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의사를 끈질기게 설득해 딸의 난자와 사위의 정자로 체외수정시켜 만든 배아를 이식받고 지난 2월 15일 임신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3월 말 피어스는 생각지 못한 임신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매달 습관적으로 임신 테스트를 했다. 그날도 별 기대 없이 테스트를 하고 보통 때처럼 테스트기를 그냥 버리려는 찰나, 선명한 두 줄이 눈에 들어왔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일 혈압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가 먼저 제왕절개로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 어머니 덕에 첫째 딸 에벌리를 얻은 피어스는 11월 23일 둘째 딸 아바를 낳았다.

▲ 나란히 딸을 출산한 캘시(오른쪽)와 리사. 사진=abc NEWS 캡처

고풍스러운 집 한 채가 단돈 1유로

▲ 카스트로니냐노 마을 전경. 사진=트위터(Phil Hiatt)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 225km 떨어진 카스트로니냐노 마을에서 주택 100채가 각각 단돈 1유로에 매물로 나왔다. 인구 감소에 노령화까지 겹쳐 존폐 위기에 놓인 이 마을을 구하기 위한 방책이다.

매물로 나온 주택은 대부분 유럽풍 고주택으로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시는 빈 주택이 흉물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해 소유자에게 보수 관리를 요구했지만 대부분은 주택을 포기하겠다며 시에 소유권을 넘겼다.

매물로 나온 주택을 구매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 시에 보증금 2,000유로(약 2,420달러)를 걸고 3년 내 리모델링을 약속해야 한다.

매물로 나온 주택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중세의 성을 철거하면서 나온 돌 등을 자재로 워낙 튼튼하게 건축돼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편이다. 현지 언론은 "적게는 3만5,000유로(약 42,000달러), 아무리 많이 잡아도 4만8,000유로(약 58,000달러)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보증금 2,000유로는 반환된다.

스카필라티 카스트로니냐노 시장은 "1960년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나가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했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젠 살만한 곳이 됐다." 며 "이탈리아 제1의 도시 로마, 제3의 도시 나폴리와는 일일생활권이고, 아드리아나해, 캄피텔로 스키장도 가까워 입지적으로 뛰어난 곳이 됐다." 고 말했다.

마을은 이메일로 주택 구매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주택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구매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웃들에게 750만 달러 유산 남긴 여성

독일 중부 헤세에 살던 레나테 베델은 1975년부터 이 지역에 살며 이웃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남편인 알프레드 베델은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며 큰돈을 벌었지만 2014년 88세의 나이로, 레나테는 작년 12월,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전 레나테에게는 남편이 물려준 거액의 유산이 있었고, 올해 4월 이 유산이 남편과 거주했던 마을에 기증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레나테가 남긴 유산은 은행 잔고와 주식 및 귀중품 등을 포함해 총 620만 유로(약 750만 5천 달러) 규모다.

▲ 베델 부부가 거주했던 주택. 사진=유튜브(WELT) 캡처

베델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며, 본래 유산을 레나테의 여동생에게 물려줄 예정이었지만, 레나테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여동생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결국 레나테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과 남편이 오래도록 거주했던 발드솔름 지역에 남기기로 결정했고, 상속자는 해당 지역에 속하는 6개 마을로 지정했다.

발드솔름 지역 당국은 "처음 상속 소식을 접했을 당시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 면서 "이후 유산으로 남겨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고 설명했다.

당국은 "아직 해당 유산의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했다." 면서 "유산을 남겨준 베델 부부에게 감사를 표한다." 고 전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쉴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쉴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